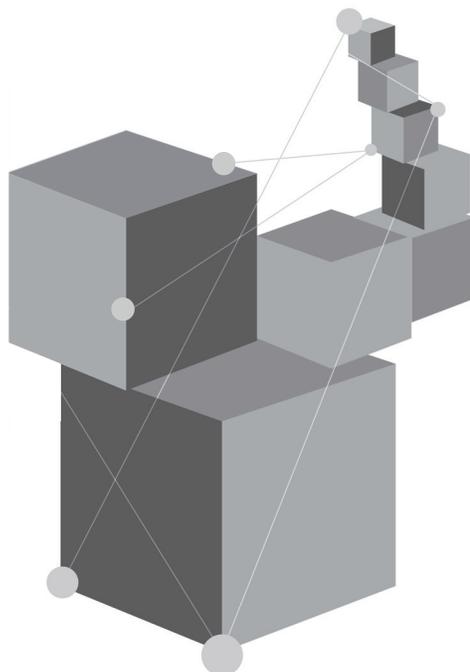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1. 자살보도의 신중

▲ 2012-1086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3.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4.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주문>

경향신문 2012년 4월 20일자 12면 「짧았던 마지막 등굣길 ... “이 학교 된 것 좋아했는데, 친구야 잘가”」 제목의 기사, 4월 24일자 10면 「헤어진 여자친구에 메시지 남기고 ... 고교생 잇단 자살」 제목의 기사, 매일경제 4월 27일자 A28면 「중학생 또 투신 ... 베르테르 효과?」 제목의 기사, 東亞日報 4월 30일자 A12면 「대구-경북 중학생 투신 이달만 세 번째 ... “특단대책 세워야”」 제목의 기사, 朝鮮日報 4월 30일자 A10면 「대구서 또 중학생 투신 자살 ... 부모 이혼 등 가정사 고민」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위 신문들은 적시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경향신문) <4월 20일자>= 『19일 오전 8시,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북 안동의 여중생 ㄱ양(14)이 다니던 학교. 등굣길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수다떨기를 좋아하는 여중생들의 모습은 아무데서도 볼 수 없었다. 20여분 뒤 교내방송을 통해 ‘학생회 간부들은 교무실로 오라’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ㄱ양의 장례 준비가 시작된 것이다.

ㄱ양이 유서에서 밝힌 ‘45분 동안 앉아 있는 훈련을 하는 것 같았다’고 했던 0교시 수업은 이날 하루만큼은 중단됐다. 장례는 ㄱ양 가족과 친지 1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조출히 치러졌다.

오전 8시30분, 7양의 영구차량이 병원을 떠난 시간에 맞춰 학생들이 교정에 쭉 늘어섰다. 7양과 1학년 때 친했던 친구들, 2학년 같은 반 아이들, 동급생인 학생회 간부 50여명이 그의 ‘마지막 등굣길’을 마중했다. 10여분 뒤, 흰색 리본을 단 검은색 승용차를 앞세운 영구차량이 교문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하나둘씩 흐느끼기 시작했다.

영구차량의 문이 열리자 교사들과 학생들은 영정 앞에 작은 테이블을 놓아 차례로 국화를 바쳤다.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들이 꽃을 엮는 것을 시작으로 친구들의 헌화가 이어지는 동안 교정은 온통 울음바다였다. 어머니는 눈물마저 말라버린 듯 그저 딸의 영정만 힘없이 바라봤다.

1학년 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영정사진을 들고 교실로 향했고, 7양의 같은 반 아이들이 그 뒤를 따랐다. 학교 4층 건물 중 2층에 있는 교실. 7양의 책상은 앞쪽에서 세 번째 줄, 남쪽 운동장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창가에 있었다. 그곳에는 국화 한 다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어머니는 끝내 대성통곡했다. 어머니는 딸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다.

가족들은 4층 교실로 올라갔다. 7양이 그나마 즐거운 시절을 보낸 1학년 때의 교실. 지금은 3학년 학생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7양 영정이 이 교실을 한 바퀴 돌았다. 선생님도 아이들도 소리 없는 눈물로 7양의 마지막을 배웅했다.

교정에서도, 복도에서도, 교실에서도, 교무실에서도 온통 회한과 한숨과 통곡이 새어 나왔다. 7양 어머니는 줄곧 “이 학교에 배정되어서 얼마나 좋아했는데, 얼마나 좋아했는데 …”라고 울먹였다.

영정이 영구차에 실리기 전 7양 아버지는 참았던 눈물을 주르르 쏟아내며 도열한 아이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친구들아, 고마워. 우리 딸의 명복을 많이 빌어줘.” 영정을 든 친구는 마침내 꼭 참았던 울음보를 터트리며 말했다.

친구들의 마지막 배웅을 받으며 떠난 7양은 스타일리스트의 꿈을 피우지도 못한 채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로 남았다.

경찰은 이날 ㄱ양의 자살 동기와 배경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의 디지털 복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중생이 자살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주변에서는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면서 “디지털 복원 결과를 보면 구체적인 자살 배경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월 24일자〉= 『여자 친구와 헤어진 고교생들이 여자 친구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남기고 잇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3일 오후 6시쯤 충북 청원군 오창읍의 한 주택에서 ㄱ군(17·고교 1년)이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친할머니 ㄴ씨(65)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ㄴ씨는 “일이 끝나고 들어와 보니 손자가 창고에서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ㄱ군은 “모두 사랑하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와 함께 헤어진 여자 친구에 대한 음성메시지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남겼다. 경찰은 ㄱ군의 유족들과 학교 친구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어 오전 7시50분쯤에는 경북 상주시 ㄷ씨(49) 집 옥상에서 아들 ㄸ군(17·고교 2년)이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ㄸ군이 숨진 옥상 콘크리트 바닥에는 휴대전화가 떨어져 있었다. ㄸ군은 “엄마 품에 가서 젖을 빨며 걱정 없이 살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여자 친구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ㄸ군의 친구 강모군(17)은 “ㄸ군과 전날 밤 상주시립도서관에서 만났는데 최근 여자 친구와 헤어진 것을 고민했으며, 잠시 책가방을 가지러 간 사이에 ㄸ군이 없어져 찾아다녔다”고 말했다.

경찰은 ㄸ군이 지난 21일 여자 친구(17)와 헤어진 다음날인 22일 오후 1시 50분부터 이날 0시30분까지 모두 33건의 문자 메시지를 여자 친구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자 메시지에는 여자 친구와 헤어져 괴로워하면서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ㄸ군은 여자 친구에게 “난 이제 더 이상 4월23일은 없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증오하며 살 바에 그냥 오늘 부로 끝내 고서 엄마 품에 가서 엄마 젖 빨며 걱정 없이 살고 싶으니까”라는 메시지도 남

졌다.

숨진 ㄷ군은 조부모와 지체장애인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어머니는 7년 전 사망했다. 헤어진 여자 친구와는 지난해 7월부터 사귀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ㄷ군이 여자 친구와 헤어진 것 등을 비판,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학교생활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매일경제)= 『경북 영주의 한 중학생이 또래들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10여 일 만에 대구의 한 여중생이 또 아파트에서 투신해 중상을 입었다.

앞서 지난 17일에도 경북 안동의 한 여중생이 학업 부담을 이유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전문가들은 잇따른 학생들 자살이 모방 자살을 일컫는 ‘베르테르 효과’로 번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지난 26일 오전 8시 45분께 대구 북구 동천동 한 아파트에서 중학교 3학년 천 모양(14)이 언니 책상에 유서를 남기고 자신의 집 8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 당시 부모는 모두 출근했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언니도 등교한 상태여서 집에는 천양 혼자 있었다. 천양은 다행히 아파트 앞 화단 나무에 걸려 충격이 완화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얼굴 뼈와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천양은 A4 한 장 분량의 유서에서 ‘2학년 때 학원을 다니면서 폭행과 괴롭힘을 당해 힘들었다’는 내용과 함께 학원에서 자신을 괴롭힌 남학생과 같은 학교 여학생 등 2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렇게 살지 마라’고 충고했다. 또 유서에는 ‘공부를 해도 안된다’는 학습 부진에 대한 자괴감과 함께 자신에게 고마웠던 친구와 가족에 대한 미안함도 전했다.

학교는 지난해 5월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했지만 중학교 2학년생은 대상에서 제외돼 천양 심리 상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학교 측은 “지난해는 대구시교육청에서 1학년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천양 상태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모를 수밖에 없었다”며 “올해는 다음달부터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와 학원에서 폭력이 있었는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이 ‘베르테르 효과’로 번질 수 있다며 부모와 학교, 친구들의 보살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영훈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자살을 하는 학생들과 비슷한 심리 상태에 있는 학생들은 자살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베르테르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택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자살 전 우울증을 겪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징후가 발견됐을 때는 즉시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東亞日報)= 『대구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중학생들의 자살 사태가 잇따르는 가운데 신변을 비관한 여중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일어났다. 전문가들은 또래 청소년들의 연이은 자살이 또 다른 극단적 선택을 부르는 ‘베르테르 효과(모방자살)’가 우려된다고 하며 10대들의 자살을 막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경찰에 따르면 28일 0시 56분 대구 달성군 화원읍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주변의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장모 양(15·중3)이 투신해 숨졌다. 장 양이 투신한 아파트 복도 벽면에는 “모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장 양이 1년 전 부모가 이혼을 한 뒤 가정문제로 힘들어했다는 친구들의 말 등으로 미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투신한 아파트 주변과 집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가정 문제로 비관하다 충동적으로 자살을 선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양의 학교 관계자는 “사건 발생 이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지만 장 양이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중학생 투신 사건은 최근 5개월새 벌써 네 번째

다. 지난해 12월 권모 군(당시 15세)이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4개월 만인 올해 4월 16일 경북 영주시 휴천동에서 중학교 2학년 이모 군(13)이 투신자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군은 평소 동급생 세 명으로부터 강제추행과 폭행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열흘 뒤인 26일에는 대구 북구 동천동의 한 아파트 8층에서 중학교 3학년 천모 양(15)이 투신해 중태에 빠졌다. 공부 힘들고 학원 동급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천 양은 다행히 화단의 나뭇가지에 떨어져 목숨을 건졌다. 대구에서 자살한 청소년은 2009년 9명, 2010년과 지난해 각각 8명으로 매년 평균 8, 9명 수준이었다.

10대들의 자살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0대 청소년의 사망 유형 중 1위는 자살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서울의 초중고교생 자살자는 101명에 달해 매달 2명꼴이었다.

청소년들은 감성이 예민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해 주변인의 자살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근처럼 모방 자살의 징후가 나타날 경우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이나 왕따뿐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심적 고통을 겪게 되는데 자살 외에 다른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는 게 문제”라며 “청소년들이 당면한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훈진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도 “언론매체 등을 통해 자살 사례를 많이 접하다 보면 힘든 상황을 벗어날 대책으로 자살을 먼저 생각하게 될 수 있다”며 “자살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빨리 발견해 상담교사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朝鮮日報)= 『대구에서 또 여중생이 투신 자살했다. 작년 12월 20일 친구들의 괴롭힘을 못 견뎌 유서를 남기고 투신 자살한 김모(당시 14세)군을 포함, 최근 4개월 동안 대구 지역에서만 중·고교생 6명이 숨졌다.

28일 0시 56분쯤 대구 달성군 화원읍 한 아파트 15층 화단에서 대구 모 중학교 3학년 장모(15)양이 떨어져 숨져 있는 것을 이 아파트에 사는 친구 정보

(15)군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뛰어내린 곳 벽면에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글귀만 남았다. 숨진 장양은 투신 직전 학교 친구 김모(15)군에게 전화를 걸어 “나 15층인데 살기 싫다. 죽는다”며 “10·9·8·7 …” 카운트다운을 한 뒤 떨어졌고, 김군은 ‘쿵’ 하는 소리까지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놀란 김군은 이곳에 사는 친구 정군에게 전화를 걸어 나가보라고 해서 장양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양은 3주 전에도 술을 마신 뒤 다른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다가 친구들이 말려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1년 전 부모가 이혼을 하는 등 가정사로 고민이 많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숨진 장양이 학교폭력 등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지난 4월 대구 경북과 충북 지역에서 빈발한 청소년들의 자살 사건들을 다룬 기사들이다.

경향신문은 자살한 여중생의 모교 장례식 현장을 매우 감성적인 묘사로 자세하게 전했다. 경향신문은 그 며칠 후 잇따라 발생한 고교생들의 자살에 대해서도 그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보도했다.

매일경제신문은 영주에서 중학생이 투신자살한데 이어 대구에서 또 같은 방법으로 자살한 데 대해 상세하게 보도했다. 매일경제신문은 특히 보도를 통해 베르테르효과(모방자살)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도 동시에 스스로는 사회면 머리기사로 대서특필했다.

東亞日報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한 달 새에 3건이나 발생한 중학생 투신 자살사건을 다루면서 기사 말미에서 “언론매체 등을 통해 자살 사례를 많이 접하다 보면 힘든 상황을 벗어날 대책으로 자살을 먼저 생각하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 신문은 스스로 사회면 머리기사로 자살의 전후과정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朝鮮日報은 사회면에서 자살을 시도했던 여중생의 유서내용을 장문의 기사

로 매우 상세하게 전하면서 별도의 3단 기사를 통해 대구 중학생 투신자살 소식을 역시 상세하게 보도했다.

자살 보도는 그 자체로 이를 접하는 다른 이들에게 자살 충동을 줄 수 있으며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의 자살사건은 같은 또래에게 더 큰 자살 충동을 줄 수 있다는 학술보고가 많다. 그런 점에서 위 적시 신문들의 기사내용은 청소년들의 자살에 대해 사실 보도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자살 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128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국일보 발행인 이 상 석

〈주문〉

한국일보 2012년 8월 17일자 10면 「집단 괴롭힘에 여고생 또 투신/유족 “친구 욕설 못 견뎌”」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한국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의 한 여고생이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놓고 유족이 친구들의 집단 괴롭힘 때문이라고 주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번에는 휴대폰 집단대화에서 언어폭력이 문제였다.

16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고교 1학년인 강모(16)양은 14일 오후 1시 15분쯤 자신이 사는 송파구의 한 아파트 11층 복도에서 뛰어내렸다. 경비원이 이를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강양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강양이 숨지기 전 가족과 친구에게 안부를 전하는 유서를 남긴 점과 타살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이 사건을 자살로 여겼다.

유족들은 강양이 또래 학생들이 퍼부은 집단 언어폭력을 견디다 못해 죽음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강양의 아버지는 “딸이 자살하기 20분 전 휴대전화 대화방에서 아이들이 퍼부었던 욕설 내용을 내게 보여줬다”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마지막 메시지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양을 괴롭힌 학생들 같은 중학교를 나온 친구들이며 현재는 강양이 다니던 학교 인근 학교의 학생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집단 욕설에 가담한 학생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진 자살 이유가 집단 괴롭힘 때문인지, 아니면 성적 비관이나 단순한 우울증 때문인지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여러 정황들을 토대로 수사해보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일보는 위 기사에서 고교 1학년 여학생이 아파트 11층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집단 괴롭힘에 여고생 또 투신」이라고 투신 이유를 ‘집단 괴롭힘’으로 단정하는 표현으로 큰 제목을 달았다.

기사가 전한 유족들의 말로 미루어 보면 ‘집단 괴롭힘’이 자살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기사는 『“아직까진 자살 이유가 집단 괴롭힘 때문인지, 아니면 성적 비관이나 단순한 우울증 때문인지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여러 정황들을 토대로 수사해보면 가려질 것”』이라고 결론을 유보한 경찰 관계자의 말도 함께 전하고 있다.

자살에는 대개 한 가지 이유가 아닌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특히 자살 보도에서 선부른 단정이나 자극적인 표현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자살의 충동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따라 신문윤리강령과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권고 기준’은 자살과 관련한 기사내용과 제목, 편집을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 제목은 본문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않은 자살 이유를 ‘집단 괴롭힘’

으로 단정했다는 점에서 신중치 못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 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 보도의 신중), 제10조 「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235 신문윤리강령 위반

每日新聞 발행인 이창영

〈주문〉

每日新聞 2012년 11월 29일자 1면 「슬픈 사회 안전망/뇌종양 말기 엄마 남겨질 두 딸 걱정애 … 세 모녀 극단의 선택」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每日新聞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학원 한 번 다니지 않고도 중학교 때 줄곧 반 1등을 했으며 K여고에도 장학생으로 입학했던 천사(가명·고1)와 아픈 엄마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는 게 꿈이어서 가수를 꿈꿨던 여동생 선녀(가명·중2)는 어머니와 함께 영영 돌아오지 못할 세상으로 가버렸다.

엄마의 신병에다 생활고를 이기지 못한 모녀 3명이 방안에 착화탄을 피워 놓은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돌파했지만 어려운 이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은 촘촘하지 못해 빚어진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다.

28일 오후 1시 40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빌라에서 K(40·여) 씨와 천사, 선녀가 숨져 있는 것을 선녀의 담임교사(32)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방 안에는 야외용 가스레인지 위에 착화탄을 피운 흔적이 있었다. 교사는 “아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아이들의 이모부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안방에서 가족들이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K씨가 1년 전 뇌종양 말기 진단을 받은데다 이혼까지 한 점 등으로 미뤄 처지를 비관해 두 딸과 함께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중략)

지난달 가족이 함께 경남 창녕 부곡하와이로 간 여행이 마지막 가족여행이 됐다. 이들 모녀를 도왔던 복지재단 관계자는 “엄마가 혼자 죽을 경우 남겨질 아이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웠겠느냐.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돼 있었다면 3모녀 동반자살이라는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영남대 백승대 사회학 교수는 “기초생활수급자들 중 질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심리상담과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每日新聞은 1년 전 뇌종양 말기 진단을 받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K씨가 신병과 생활고를 비관해 고등학생과 중학생인 두 딸과 함께 방안에 착화탄을 피워 놓은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1면 머릿기사로 전하고 있다. 기사는 K씨가 이혼을 하고서도 두 딸을 키우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틈틈이 일을 나갔으나 끝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기까지의 어려운 가정사와 함께 이들 모녀를 충분히 보살피지 못한 불충분한 사회안전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두 딸이 K씨에 의해 희생당했는지 자의로 죽음을 선택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데도 위 기사는 『모녀 3명이 방안에 착화탄을 피워 놓은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단정적으로 쓰고, 비록 취재원의 말을 옮긴 것이긴 하지만 이를 『세 모녀 동반자살』로까지 표현했다.

이 같은 보도는 자칫 자살의 전염력을 높여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또 다시 자살의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 나아가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신문윤리강령과 한국기자협회의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자살 보도에 관한 기사 내용과 제목, 편집을

신중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살 기사를 1면 머릿기사로 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자살 보도의 신중)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236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북일보 발행인 정 정 화

〈주문〉

경북일보 2012년 12월 3일자 4면 「인터넷서 만난 남녀 셋 연탄 피워 동반 자살」 기사, 제목 및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경북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포항에서 남녀 3명이 동반자살하는 등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포항 한 빌라에서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남녀 3명이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밤 8시15분께 남구 대도동 한 빌라에서 한모(31)씨, 구모(31·여·서울)씨, 전모(25·강원도 영월)씨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들은 방에 나란히 누운채 발견됐으며 현장에는 이들이 연탄불을 피운 흔적과 개별 작성한 유서, 공동 작성한 유서 등 4장이 함께 나왔다.

유서에는 이들이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만나게 된 경위와 지난 9월6일부터 다음날까지 경기도 가평, 강원도 등에서 2차례에 걸쳐 차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으나 실패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이런 이유로 지난 9월 8일 포항 한씨의 집에 왔으며 자신들이 발견 됐을

때 식물인간이나 뇌사일 경우 안락사를 시켜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이 평소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는 유족의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원인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이들이 만났다는 인터넷 자살사이트를 추적하고 있다.

이에 앞서 같은날 오전 10시 56분께 남구 해도동 한 빌라에서 이모(27)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발견 당시 번개탄 여러장을 태운 흔적과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남녀 3명이 숨진채 발견된 포항의 한 빌라 내부.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일보의 위 기사는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남녀 3명이 포항 한 빌

라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 포항의 또 다른 빌라에서 이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등 두 건의 자살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연탄불을 피운 흔적』 『번개탄 여러장을 태운 흔적』 등으로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특히 남녀 3명 동반자살 사건의 경우 두 차례의 자살 시도가 실패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유서 내용까지 공개하고 있다. 게다가 기사 제목도 「인터넷서 만난 남녀 셋 연탄 피워 동반 자살」로 자살 경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또한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현장 사진까지 게재했다.

위 기사는 자살 보도를 신중하게 할 것을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나며, 자칫 자살의 전염력을 높여 사람들에게 모방 자살 충동을 느끼게 만들고 나아가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자살 보도의 신중)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10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2. 일간스포츠 발행인 정 경 문
3.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문〉

東亞日報 2012년 1월 3일자 A13면 「필리핀 여행중 납치된 아들 못잊어 ... 세밑에 목숨 끊은 아버지/■청주 50대 가장의 안타까운 죽음」 제목의 기사, 일간스포츠 1월 14일자 1, 2면 「“모자란 부모 용서 말아라”/본지 단독 고 조성민 유서 입수」 제목의 기사, 문화일보 1월 18일자 9면 「투병·외로움 ... 36년 독거 70代 할머니 목 매/간호사가 집 찾아가 발견/이혼후 자식과 떨어져 살아」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東亞日報, 일간스포츠,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東亞日報)= 『언덕 정자 아래 긴 의자에 앉은 홍봉의 씨는 물끄러미 큰길 건너 맞은편의 아파트를 쳐다봤다. 동갑내기 아내, 일곱 살 터울의 남매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던 보금자리가 눈앞에 보였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한 손에는 한 모금 들이켠 소주병이 들려 있었다. 모처럼 휴가를 얻어 해외여행을 간다며 좋아하던 아들에게서 연락이 두절된 지 벌써 13개월째. 이제는 꿈에도 나타나지 않는 아들을 볼 수 있는 길은 하늘나라밖에 없다고 홍 씨는 생각했다. 남은 슬병을 모두 비운 그는 배낭 속에 있던 농약병의 뚜껑을 열었다. 전날 아내와 딸, 친척, 친구 등에게 쓴 5통의 유서가 담긴 봉투를 한번 꼭 쥐었다. 농약병을 입으로 가져갔다. 세밑 한파가 몰아친 2012년 12월 31일 오후 8시경, 홍 씨는 평소 자주 다니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성당 근처 산책로에서 아들을 그리며 57세의 나이에 쓸쓸히 세상과 이별했다.(중략)

홍 씨가 편지지에 볼펜으로 꼭꼭 눌러쓴 유서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애절하게 묻어났다.

“마지막으로 당신 힘든 짐만 지고 먼저 가지만 이승에서 못해준 거 죽어서라도 꼭 갚을게” “어디 나무랄 데 없는 우리 딸 그저 아빠는 착한 딸에게 나쁜 모습만 보여줬구나. 불쌍한 엄마, 항상 옆에서 잘 보살펴 드려라.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볼게.” - 2012년 12월 30일』

(일간스포츠)= 『지난 6일 사망한 조성민(40) 전 두산 코치의 유서가 발견됐다.

조 전 코치의 전 에이전트인 손덕기(51)씨는 13일 “고인의 짐을 정리하던 중 배낭 속에서 유서를 찾았다”며 본지에 내용을 공개했다. 가로 9cm, 세로 15cm 크기의 수첩에 3페이지에 걸쳐 자필로 작성된 글에는 ‘유서’라는 제목으로

고인이 가족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가 담겨 있다.

고인은 먼저 부모에게 “못난 자식이 그동안 가슴에 못을 박아드렸는데 이렇게 또다시 지워질 수 없는 상처를 드리고 떠나가게 된 불효자를 용서하세요”라고 글을 시작한 뒤 “이 못난 아들 세상을 더는 살아갈 자신도 용기도 없어 이만 삶을 놓으려고 합니다. (중략)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이 드네요”고 괴로움을 토로했다. 이어 자녀에게 “너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상처를 아빠마져 주고 가는구나”라고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 “법적 분쟁을 위해 저의 재산은 누나 조성미에게 전부 남깁니다”라고 글을 맺었다.

손덕기씨는 “날짜나 서명은 없지만, 18년 동안 봐온 고인의 글씨가 맞다”라며 “자살을 시도한 당일(6일)에 쓴 것 같지는 않다. 글씨가 상당히 안정돼 있었다”며 “그동안의 생활이나 자기 처지를 비판하고 죽음을 예고한 것 같은 유서였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남편과 이혼 후 자식들과도 떨어져 30여 년간 혼자 살아온 70대 투석 환자가 생활고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8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시 7분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김모(여·71)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다. 10여 년 전부터 신장 질환으로 주 3회씩 혈액투석을 해오던 김 할머니가 예약된 날짜에도 병원에 오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간호사 김모(여·33) 씨가 집에 들러 아파트 부엌 가스레인지 배관에 목을 맨 채 쓰러져 있는 김 할머니의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아파트 현관문이 열려 있었으나 집 안은 깨끗했고 정리 정돈도 잘 돼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유서가 발견된 점, “몸이 불편한 김 할머니가 홀로 지내면서 생활고 등으로 힘들어했다”는 이웃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 할머니가 처지를 비판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김 할머니는 자살을 결심한 뒤 자신의 전 재산 495만 원을 은행에서 찾아 현금으로 지갑에 넣어둔 상태였다.

숨진 김 할머니는 36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당시 7세였던 딸과도 줄곧 떨

어져 지냈다. 외로움과 생활고에 시달린 김 할머니는 만성 신장질환과 고혈압 등 지병까지 얻어 신장장애 2급 상태였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한 달에 20만~30만 원씩 받는 것 말고는 별다른 별이가 없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다.

사망 소식을 들은 이웃들은 김 할머니를 “이웃과 왕래가 거의 없고 말수가 없는 편이었다”고 기억했고 고인이 10년 동안 다닌 병원 관계자들은 “조용하지만 마음씨가 좋은 분이였다”고 안타까워했다.

경찰 관계자는 “36년 만에 헤어진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듣고 경찰서를 찾은 딸이 ‘일곱 살 때 부모님이 이혼한 이후 어머니와 연락 없이 살았다. 어머니가 지병과 외로움에 자살한 것 같다’고 진술하며 통곡했다”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東亞日報은 위 기사에서 필리핀 여행 중 납치돼 생사가 불분명한 아들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지난 세월에 자살한 흥봉의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내러티브 기사 형식으로 상세히 보도했다.

그런데 기사는 도입부에서 『남은 술병을 모두 비운 그는 배낭 속에 있던 농약병의 뚜껑을 열었다. 전날 아내와 딸, 친척, 친구 등에게 쓴 5통의 유서가 담긴 봉투를 한번 꼭 쥐었다. 농약병을 입으로 가져갔다.』 등 자살 과정과 상황을 지나치게 상세히, 그리고 감상적으로 묘사했다.

특히 『이제는 꿈에도 나타나지 않는 아들을 볼 수 있는 길은 하늘나라밖에 없다고 흥 씨는 생각했다』는 기술은 혹자에게는 자살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

일간스포츠 기사는 지난 1월 6일 자살한 야구인 고 조성민씨 유서를 입수해 소개한 단독기사다.

일간스포츠는 “「모자란 부모 용서 말아라」라는 감성적 표현의 큰 제목에 조씨의 영정 사진과 유서 사진으로 1면을 메우다시피 했고, 2면은 유서 전문과 유서를 처음 발견한 전 에이전트 인터뷰, 「상처로 얼룩진 삶 ... 예고된 비

극이었다」는 제목의 박스 기사로 채웠다.

문화일보는 남편과 이혼한 후 자식들과도 떨어져 30여 년간 혼자 살아온 71세 할머니가 자살한 사건을 사회면 4단 중간기사로 크게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기사 첫 머리에서 『70대 투석 환자가 생활고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자살 배경과 이유를 단정적으로 전했다. 하지만 자살한 할머니는 유서를 남기지 않았고 문화일보가 전한 자살 동기는 경찰 관계자 등의 추정일 뿐이다.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루어서는 안된다’며 모방자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1면 머리기사로 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위 세 신문들의 자살 관련 보도는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자살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나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자살 보도의 신중)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11 신문윤리강령 위반

慶南日報 발행인 이 연 근

〈주문〉

慶南日報 2013년 1월 14일자 4면 「남은 가족 자살 가능성 높다」 제목의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慶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 다음의 사진을 게재하였다.

ISSUE

4

기획

사 회

<하>잇단 자살, 예방 대책은 없나?

남은 가족 자살 가능성 높다

◇'자살 유가족' 특강은 고통 겪는다
 사람은 끔찍한 사고를 당하거나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겪게되면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흔하게 말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가 바로 그것.
 그런데 이와 비슷한 정신질환을 자살자의 유가족들도 겪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실제로 유가족들은 가까운 사람이 떠나간 충격으로 우울증같은 정신질환은 물론 자살충동까지 겪기도 한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야구선수 고 조성민 씨 역시, 전 부인 태우고 회안실 씨와 재남이 스스로 자살은 본인만의 '선택'이 아니라, 남겨진 유가족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
 자살자가 떠난 뒤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자살 유가족'들은 친구 등 지인으로까지 범위를 넓혀 '자살 생존자'로 불리기도 한다.
 경남 자살유가족지원센터(한국생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으로 1만5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의 자살로 영향을 받는 사람, 즉 유족과 친구 등까지 확대하면 자살 생존자는 연간 약 10만명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들 자살 생존자 대부분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 주된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유가족들을 '자살 고위험군'으로



실제, 위험지원센터에는 위험관련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위험난이 자살로 이어질까 우려되고 있다.
 경남의 위험지원센터 관계자는 "학업 스키나 내달 등 취약계층인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와 낮은 자존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신의 자치를 판단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전했다.
 김중철 경상대 심리학과 교수는 "1만 명은 일반인의 가족의 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특히 정책 입안자들이 자살이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내 창원시 등에는 자살예방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각 지역별로 정신건강지원센터를 설치해 상담전화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살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상담과 유족 지원모임을 늘리는 한편, 사외 인사를 격려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창원시에서는 최근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잇따라 자살을 환자 지원모임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창원시는 자살예방상담센터 운영, 정신건강지원센터에 노인우울증 예방교과, 산후조리원 심리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진주시에서도 기존 보건소 산하에 있던 정신건강센터를 따로 분리해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단주시 분산된 정신건강센터 관계자는 "유족

“지키지 못했다” 죄책감 우울증 시달리며 고통 전문가 “자살 고위험군” 유가족에 관심 가져야

상충증도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유가족들을 더 망설이게 하는 것은

〈慶南日報 2013년 1월 14일자 4면〉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慶南日報는 자살예방을 위한 기획물인 위 기사에서 ‘자살 유가족’이 겪는 고통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는 보도를 했다.

기사는 그러나 「남은 가족 자살 가능성 높다」는 큰 제목 아래 자살도구인 을가미 사진을 올렸다. 사진 밑 작은 제목도 「“지키지 못했다” 죄책감」으로 달아 제목과 사진이 전체적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끔찍한 장면을 연상케 하고 있다.

을가미 자체만으로도 섬뜩함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남일보는 독자들의 일반적인 정서를 외면하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적으로 보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진의 게재는 자살의 충동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나 어린이 등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살 보도를 신중하게 할 것을 규정 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나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 보도의 금지),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준중」 ④(자살 보도의 신중),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53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주문〉

경향신문 2013년 1월 30일자 14면 「기아차 사내하청 해고자 자살 “버티는 일조차 힘들더라”/3년여 복직투쟁에 생활고」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기아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생활고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8일 오후 11시30분쯤 경기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주택에서 윤모씨(35)가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지인인 이모씨(38)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윤씨가 자살하기 직전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 의심스러워 밤늦게 집으로 찾아갔더니 이미 목숨을 끊은 뒤였다”고 말했다.

윤씨의 방 안에서는 A4용지 2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윤씨는 유서에서 해고 이후 복직투쟁을 벌이는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고아였던 윤씨는 유서에 “아마도 저는 평생 엄마를 찾아 헤맸나 봅니다. 조직도 노조도 친구도 동지도 차갑더라고요. 허기진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 너무 힘들었지요. 버티는 일조차 힘이 들더라”고 적었다. 이어 “세상에 낳는 건 누구나 평등해도 사는 일은 그렇지 않았는데, 다행인 것은 그 누구나 죽음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라며 모진 세상을 향해 작별을 고

했다.

숨진 윤씨는 2007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의 한 하도급업체 소속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4년간 도장팀에서 일해왔다. 2008년부터 1년간 지회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잔업거부 등을 하다 2010년 4월 해고됐다.

윤씨는 이후 해고자복지투쟁위원회에서 복지투쟁을 벌였다. 이 때문에 특별한 직업 없이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지난 3년간 심한 스트레스와 생활고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지난해 임금단체협상에서 화성공장 해고자 중 일부를 복지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윤씨는 복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씨의 시신은 경기 화성시 화성중앙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31일 발인을 앞두고 있다.

금속노조와 기아자동차 화성지회는 이날 긴급간담회를 열고 장례일정을 비롯해 고인의 명예회복, 사측의 책임자 처벌 등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화성지회 관계자는 “윤씨는 평소 성격이 명랑하고 밝았는데 이 같은 결정을 해 너무 안타깝다”며 “장례는 노조를 중심으로 치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판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은 위 기사에서 기아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뒤 3년 남짓 복지투쟁을 해온 윤모씨(38)가 자살한 사건을 상세히 보도했다.

그런데 기사는 윤씨의 유서 내용 중 『“세상에 낳는 건 누구나 평등해도 사는 일은 그렇지 않았는데, 다행인 것은 그 누구나 죽음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라고 죽음을 미화하는 듯한 감성적 표현까지 함께 소개했다.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자살을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위 기사는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자살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자살 보도의 신중)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